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이수진(왼쪽)·오영환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을 들고 의안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힘 '조직방송 규명 TF' 구성...민주 '박진 해임건의안' 제출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정면충돌
주호영 "방송이 해외순방 성과 폄훼"
민주 "내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욕설 발언' 논란과 관련, 국민의힘은 MBC의 최초 보도를 편파·조작 방송으로 규정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27일 구성하기로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순방 외교 논란'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TF'를 구성해서 편파 방송 시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3선 박대출 위원장이 팀장을 맡고 박성중·윤한홍·윤두현·최형두·장동혁·조수진 의원이 참여한다. 주 원내대표는 "MBC는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보

도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된다"며 "항간에 돌아다니는 받은 글, 소위 지라시를 자막으로 그대로 입혀 방송하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포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MBC는 지난해 야권 유력 대선 후보 부인을 취재하기 위해서 경찰 사칭까지 하며 취재 윤리를 내팽개친 전력이 있고 끊임없이 우리 당에 대해서 편파적 방송을 해 온 전력이 있다"고 몰아붙였다.

그는 "그동안 공영방송의 편파 보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과 미디어특위가 중심이 돼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과 시정 노력을 해왔지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며, 특정 노조와 야당이 입을 맞춘 듯 방송 조작을 주장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완전히 경색됐던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첫발을 떴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뤘다"면서 "이런 성과들이 폄훼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169명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견이 전혀 없는, 만장일치 당론 추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임건의안은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외교성과는 모래성처럼 사라질 것"이라며 "해임건의안 제출 시 3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 의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본회의) 표결에 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국회 권한이다. 제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으로도 발의 및 의결이 가능하다.

해임건의안은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되고, 이로부터 24~72시간 이내에 표결(무기명 투표)에 부쳐진다. 이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尹정부 첫 국감 앞두고 전열 가다듬는 국힘 “文정부 적폐 청산하고 민생정책 챙기겠다”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국민의힘은 내달 4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일주일 앞둔 27일 민생·소통 등을 내세우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우리가 정부 여당이 됐지만, 국회의 입장에서 정부가 잘하는지 정당당당하게 제대로 살피는 국감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잘살 수 있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정부에 요구하는 그런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며 "나라의 주인은 국민들이고 국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점이나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저희가 대신해서 국감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데이터 자료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서 국민들이 판단하는 그런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감 종합상황실장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맡아서 각 상임위 간사 등과 소통하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국감 제안센터를 열어 정책 제안 등 제보를 접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열린 국감 사전 점검회의에서도 각 상임위의 국감 준비 상황에 대한 비공개 보고가 진행됐다. 주 원내대표는 국감 사전 점검회의 모두발언

에서 "이번 국감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라며 "모든 적폐와 나라를 망가뜨린 행위들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정리하고 이를 모두 이번 국감을 계기로 정리하고 넘어간다는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오전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 임명식을 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단장을 맡은 홍석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 때 재정 방향으로 막대한 국가부채로 인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규제개혁을 통한 국민 경제 활성화, 민간 투자 촉진, 특히 인력이라는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규제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살길"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만큼은 민생, 경제 현장에서 제갈할 수 있는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우수 인력, 기술력으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선진국 도약을 위해선 기술 우수 선점해야 하고 이를 위해 반드시 규제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참석해 현 정부의 국정 과제와 규제 개혁 관련 방향 등을 논의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조선의 정의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출곡)을 비서실장으로 이날 임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통령실 '尹 비속어 논란' 법적대응 않기로

보수단체 고발 수사 불가피 판단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발언 논란'과 관련, 직접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지는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직접 고발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대통령

실보다 야당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이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적은 한 차례도 없다. 지난 대선 기간 캠프 안에 네거티브 대응팀과 법률팀을 설치하고 각종 의혹 보도에 적극적으로 고소·고발로 맞서던 것과는 달랐다. 분위기가 이렇다.

이번 비속어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같은 방침이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는 전날 국민의힘 기초의원과 보수 시민단체 등이 잇따라 논란의 대상이 된 언론사를 고발한 만큼, 굳이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더라도 관련 수사가 자동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자단 엠바고(보도 제한) 해제 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이 논란이 먼저 제기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 공식 입장이다. 불상의 유출자와 언론사 등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20주년!!

2022년 임인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첨단우리병원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